

• 생활과 윤리 •

정답

1	⑤	2	④	3	⑤	4	⑤	5	④
6	②	7	②	8	④	9	③	10	③
11	①	12	③	13	①	14	③	15	②
16	①	17	②	18	①	19	②	20	④

해설

1. [출제의도] 이론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 비교하기

제시문의 ‘나’는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오답풀이] ①, ③ 메타 윤리학에서 비판할 진술이다. ②, ④ 기술 윤리학에서 간과하는 진술이 아니다.

2. [출제의도]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파악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목민관(공직자)이 백성을 다스리는 바른 도리에 관해 제시하며 목민관은 절용과 청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윤리적 성찰의 중요성 파악하기

가상 편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상가는 율곡 이이다. 이이는 잘못된 습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인격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보며 윤리적 성찰의 삶을 강조하였다.

4. [출제의도] 동물 실험에 대한 상어의 입장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상어이다. 상어는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상어는 모든 동물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 ㄴ. 상어는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 파악하기

같은 복제된 배아가 인간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하므로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복제된 배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므로 배아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 갑과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없다.

6. [출제의도] 국가의 권위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이해하기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인간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공통의 법률이나 재판관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한편 홉스는 자연 상태에는 정의와 부정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부부 윤리에 대한 유교의 입장 이해하기

(가)의 제시문은 유교의 오륜(五倫)에 관한 것이고, (나)의 ㉠은 ‘부부’에 해당한다. 유교에서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 서로를 공경해야 하는 관계라고 본다.

8. [출제의도] 사회 윤리에 대한 니부어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사회 집단 간

갈등은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해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외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니부어는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기 보다 정치적이라고 보았다. ㄴ.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폭력을 수반하는 강제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는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며 인간은 국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유전적 개입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신문 칼럼의 내용과 관련 있는 사상가는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적 개입은 출생의 자연적 우연성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격체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성에 대한 보수주의와 중도주의 입장 파악하기

(가)는 보수주의, (나)는 중도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는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제시하며 혼인 관계인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중도주의는 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12. [출제의도] 양성평등에 대한 밀의 입장 파악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을 비판하고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밀은 남성과 여성에게 경쟁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때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진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파악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롤스이다.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위법하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14. [출제의도] 형벌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찬성하였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며, 살인에 대한 형벌은 범죄 억제 효과가 큰 종신 노역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베카리아가 간과하는 내용이 아니다. ② 칸트는 형벌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④ 칸트가 간과하는 내용이 아니다. ⑤ 베카리아는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 적용하기

제시문의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벤담은 A에게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도입이 가져올 이익과 손해의 총합을 고려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칸트가 제시할 조언이다. ③ 벤담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④ 벤담은 어떤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벤담은 유용성의 원리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6. [출제의도] 유교와 도가의 사상적 입장 이해하기

(가)는 유교 사상이고, (나)는 도가 사상이다. 유교 사상은 인간이 사욕을 극복하고 외면적 사회 규범인 예(禮)를 회복하여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가 사상은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오답풀이] ② 무위의 삶은 도가 사상에서 강조한다. ③ 유교 사상의 입장이다. ④ 도가 사상에서는 분별적 지식을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⑤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17. [출제의도] 칼뱅과 마르크스의 직업관 이해하기

갑은 칼뱅, 을은 마르크스이다. 칼뱅은 인간의 모든 직업 활동이 신의 소명(召命)에 의한 것이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업과 기계화로 인해 노동자는 강제된 노동을 하게 되며 노동 소외를 겪게 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칼뱅은 소명의 실천으로 인한 부의 축적은 신의 축복이라고 보았다. ③, ④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분업과 기계화는 노동 소외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⑤ 칼뱅은 노동은 신성한 것이므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노직과 롤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며 재화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의롭다면 그 결과도 정의롭다고 보았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토대로 사회가 운영될 때 사회적 기본 가치가 정의롭게 분배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노직과 롤스는 모두 분배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②, ③ 노직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노직과 롤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9. [출제의도]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갑은 태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이 아니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을은 태아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20. [출제의도] 플라톤과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날 때 참된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다.